타결이냐 파국이냐… 막판 줄다리기

■ 여야, 미디어법 최종 담판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담판이 진행되면서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진출 장벽 해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

21일 여야는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한 최종 담판에 착수했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및 종합편성채널(종편) 지분 허용 한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종 협상시한을 이날로 설정함에 따라 미디어법 정국이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협상결렬시 한나라당은 당장 22일부터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지난 연말연초와 2월 임시국회에 이은 3차 입법대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대기업 및 거대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되, 지분 참여비율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도채널의 경우 조·중·동 및 대기업의 진출을 불허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출하려는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각각 시장점유율 10%,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상파든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신문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민주당에 협상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는 오늘 이후까지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의 핵심은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우리가 100보를 양보, 진전된 안을 만들어 협상장에 나갔으나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에 대한 검은 의도와 기본적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긴박한 여야 21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가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을 다듬고 있다.〈왼쪽〉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미디어법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이견

한나라 내일 직권상정 할 수도

한편,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경우 D데이는 23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직권상정 시도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23일부터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협상결렬에 대비, 직권상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임시국회 막판까지 여야간의 합의를 유도하겠지만 협상이 깨지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물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직권상정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이며 실패한다면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디어법 파워 과시한 박근혜 향후 득실은

협상 타결되면 주가 상승

직권 상정 통과하면 역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미디어법 협상이 다시 이뤄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은 물론 박 전 대표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권상정 후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면 박 전 대표에게 불어올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 협상 타결**=한나라당이 폭 넓은 양보를 통해 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성공, 큰 소란 없이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할 경우 박 전 대표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교착 상태에서 재협상을 이끌어낸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찬사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21일 현재까지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협상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용, 나아가 박 전 대표를 다독거리기 위한 수단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양당의 협상 결렬 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선택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은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직권상정**=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박 전 대표의 위상은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등 한나라당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론, 직권상정이 시도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보좌진 및 당료들과 힘을 합쳐 결사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뭉쳐 당초 안을 통과시킨다면 박 전 대표는 상처를 입게 된다. 친이·친박으로 갈라져 한나라당의 분열은 분당 직전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회기 처리로 합의**=미디어 관련법 협상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표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브란스 병원 "DJ 건강 점차 호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발호흡을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전 건강상태가 갈수록 호전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산소포화도나 혈압, 맥박 등 건강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가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력도 많이 회복됐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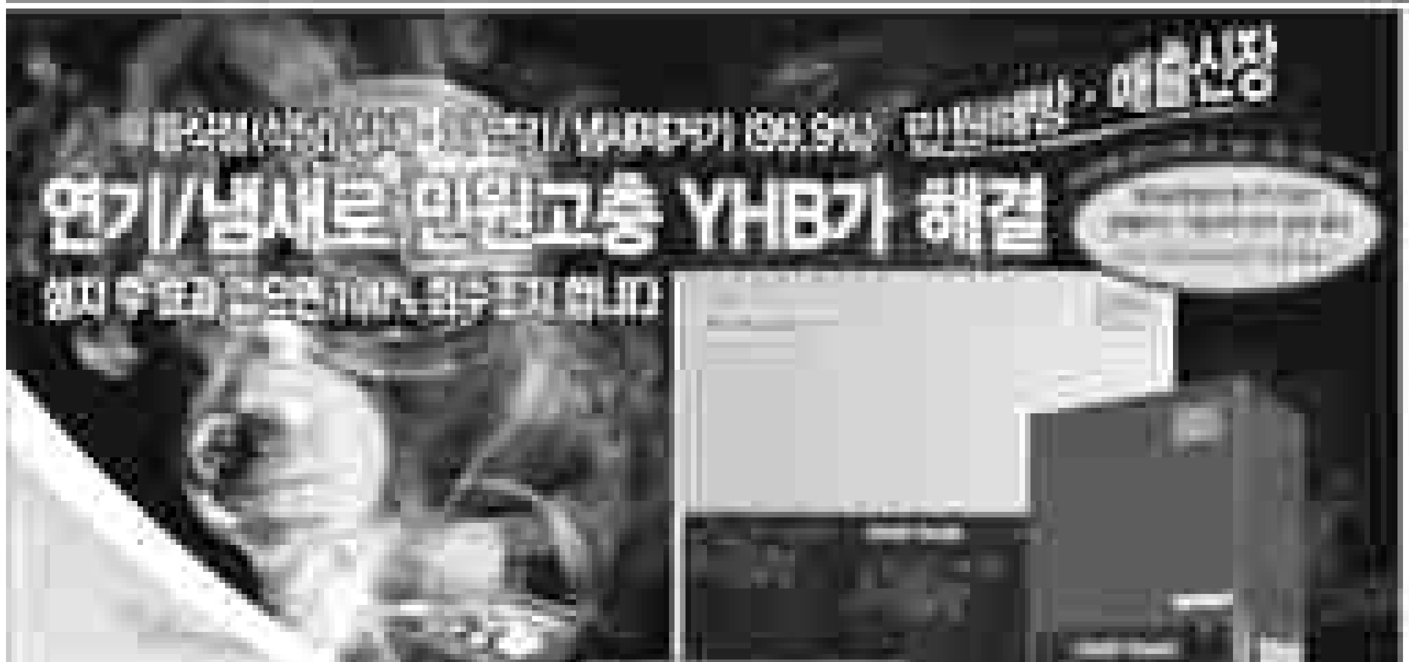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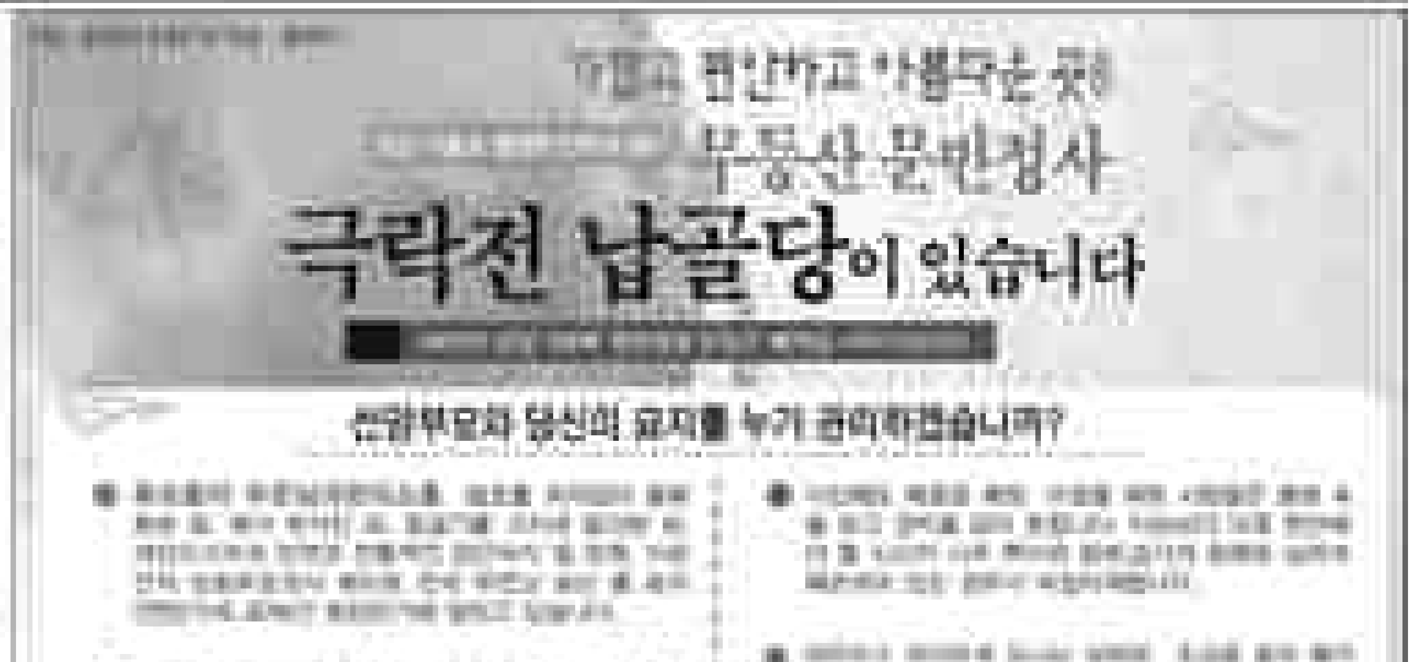
그러나 병원 측은 "다만 김 전 대통령이 워낙 고령인데다 신장 투석 등으로 몸이 쇠약해져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도 "직접 물을 마시기도 하고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등 많이 회복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병원에는 전날 오후 찾아온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3일 폐렴 증세로 입원해 16일 오전 호흡이 가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으나, 상태가 호전되면서 나흘 만인 19일 오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성관 정보 유출' 검찰, 조사 일단락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의 쇼핑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을 관세청 등 해당 기관에 인계하고 조사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사실상 보류한 것이다.

검찰은 유출 경위 파악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관세청 등에서 자체 조사 중이고, 사안의 성격상 해당 기관의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